

# 끝 안 보이는 장마... 채소·과일 등 밥상물가 '적신호'

**폭염·폭우 반복... 산지출하 영향 적상추, 일주일새 소매가 56% ↑ 일각선 근원물가 영향 제한적 분석**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전국 장마가 장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수박·상추 등 채소와 제철 과일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관련 부처는 밥상물가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밥상 물가 영향에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 만에 56.3% 상승했다. 전년 대비 16.5% 이상 오른 수치다.

다른 채소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금치는 100g에 1675원으로 1주일 전보다 17.5% 상승했다. 풋고추는 100g에 1508원으로 1주일 전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상추와 깻잎 등 채소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2.3%, 1년 전보다 27.3% 각각 상승했다.

배추(한 포기·5092원)와 열무(1kg·4404원)도 1년 전보다 각각 24.0%, 22.3% 올랐다. 수박은 1개 2만1736원으로 1주일 전보다 3.5%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7.5% 오른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추는 가락시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충남 논산, 전북 익산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에 채소 생육도 악영향을 받는다. 올해 장마는 농가에 유난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이상 기후가 채소 및 과일 출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로 이어진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장마는 과거보다 더욱 길어지면서 채소와 과일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긴 장마로 산지 출하가 불안해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는 채소 등 농산물 공급량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밥상 물가 상승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매일 회의를 열어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의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병해충 방제, 농가 현장 기술지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

해 평가를 조속히 마치고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해 농산물 수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 피해가 발생한 직후 농촌진흥청 기술 지원과 농협의 무이자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동원해 공급량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일부 품목의 경우 주산지에 호우가 집중돼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지만,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장마철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상 기후로 특정 품목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체감 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근원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풀무원, 파스타 시장 저변 확대 나서

**바릴라 경연대회 APAC 본선 성료 김정호 셰프 대한민국 대표 선정**

'국내 냉장면 1위' 풀무원이 '이탈리아 파스타 1위' 업체 바릴라와 손잡고 파스타 신메뉴 및 셰프 발굴 등 국내 파스타 시장 저변 확대와 글로벌 미식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풀무원식품은 아시아 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대표 셰프를 뽑는 '2024 바릴라 셰프 경연대회 APAC'의 한국 본선을 성료하고, 파스타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 바릴라 셰프 경연대회 APAC'은 이탈리아 파스타 No.1 바릴라가 주최하는 전문 셰프들의 파스타 요리 경연 대회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8개국에서 국가별 본선을 진행하였다. 풀무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본선은 지난 16일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개최



지난 16일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개최된 '2024 바릴라 셰프 경연대회 APAC'의 한국 본선 참가자들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됐다.

이날 본선 심사 결과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출신의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근무 이력이 있는 WALF의 F&B디렉터 김정호 셰프가 대한민국 대표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 재료인 토마토와 가지를 사용해 파스타의 기본에 충실하였으며, 각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조화로운 메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셰프는 오는 10월 마닐라에서 열리는 8개국 결승전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풀무원은 '좋은 원료만을 사용해 건강한 식품을 만든다'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바릴라와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바릴라 파스타 면과 소스를 독점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소비자들에게 이탈리아식 정통 미식을 계승하는 파스타의 맛을 전달하고자 서비스 브랜드 '아티장'을 론칭하고 다양한 파스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나라셀라, 뉴질랜드 와인 '시크릿 스톤' 출시

**출시 기념 쿨러백 선착순 증정**

와인 수입업체 나라셀라는 뉴질랜드의 신규 와인인 '시크릿 스톤'을 출시했다.

'시크릿 스톤'은 뉴질랜드 말보로에서 2004년 설립된 와이너리로, 뉴질랜드의 신비한 돌인 '그린스톤'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린스톤처럼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아로마와 감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크릿 스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뉴질랜드 소비농 블랑 특유의 자른 풀과 자몽 향의 강렬한 뉘앙스를 가진 와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상큼한 시크러스와 핵과류 향이 코를 즐겁게 하고, 입에 머금자마자 느껴지는 신선한 산도가 인상적이고 자몽 향이 긴 여운을 남긴다. 식전주로도 손색없고, 굴, 초밥, 숙성회와 같은 해산물 요리와 크림 또는 오일 파스타와 잘 어울린다.

시크릿 스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나라셀라가 선보이는 뉴질랜드 와인 '시크릿 스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의 모습. /나라셀라

나라셀라 직영점(와인픽스·나라셀라 리저브)과 전국 주요 백화점(현대·신세계·롯데·갤러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고, 출시를 기념해 와인 쿨러백을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가성비 좋은 프레시한 뉴질랜드 와인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성비'와 '가성비'를 충족시킬 와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 CU, 요거트 등 건강관리 상품 라인업 강화

**오롤리데이 협업 그릭요거트 출시**

CU가 건강 관리 트렌드를 이끌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롤리데이'와 협업한 그릭요거트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오롤리데이는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일상 아이템을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릭요거트는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 꾸덕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반 플레인 요거트에 비해 당류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유

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견과류, 샐러드 등과 함께 먹을 수 있어 활용성도 높다.

CU가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그릭요거트 플레인(3500원)'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 NB 상품 대비 최대 16% 가량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다.

CU가 그릭요거트를 출시하는 이유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매출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U의 그릭요거트 매출 성장률은 2022년 무려 983.6%를 기록했고 2023년 43.0%, 올해(1~6월) 120.8%로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모델이 '사이초'를 들고 있다. /롯데백화점

### 롯데백화점 스파클링 티 '사이초' 선봬

롯데백화점이 21일 잠실점, 인천점, 동탄점에서 세계 최고급 스파클링 티 음료 '사이초'를 선보인다.

'사이초'는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5성급 호텔에서만 만날 수 있던 영국 프리미엄 스파클링 티다.

/최빛나 기자

## 홈플러스, '가을학기' 회원 선착순 모집

**초저월령 등 신규강좌 개설**

홈플러스가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강좌들로 구성된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각 강좌는 클래스별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홈플러스 86개 점 문화센터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5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문화센터 가을학기 강좌는 초저월령(3~7개월) 강좌가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 8개월 이후 인기 프로그램들은

저월령 특성에 맞게 교구, 의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변화를 주어 신규 강좌를 개설했다. 이를 위해 베이비마사지 자격증 취득이나,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배맘들로 강사를 구성하는 등 3~7개월 초저월령 강좌 운영을 원하는 백일둥이 이야기 엄마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런칭 기념으로 8월에는 초저월령 대상으로 그림책 상호놀이법과 안정애착 양육코칭으로 구성된 '꾸미꾸미 광광 그림책 워크샵' 프로그램을 전국 5개점에서 우선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